



수요 기도회 소식

4월 2 일

주제: “ 너는 내것 이다.”

진행: 이 필로메나 음악봉사자; 오그라도, 최유스티노, 김 요한

복음 묵상: 요한 12, 20-33(예수를 찾아온 이방인) 참석가족: 18명

나눔;

- 강루시아; 남부를 여행중 Mission의 미사중에 부활이 가까워지며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며..
- 이 니콜라스; 봉사자 피정중에 말씀안에 안수를 받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통곡까지한...
- 김 모니카; 신비로운 생명의 신비를 보며 오묘하신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을 경외하는자는 자손대대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는 나날의 은혜에 감사하며...
- 전 난이 : 주고받은 상처로 말도 않하던 가족의 일원을 미사중에 내려주신 은혜로 가련한 마음과함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어 화해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이..
- 이 필로메나: 4년전에 결혼한 딸이 임신 3개월이되었는 기쁜소식에 너무 기뻐 울며 감사하는..

예언 모음;

- 사랑하는 자녀들아, 항상 깨어 있어라. 나와함께 항상 깨어 있어라.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받아드려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기 때문이다.
- 기억하여라.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때 아버지께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따라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나의 부활이 너희들의 부활을 만들었으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도 머지않아 부활이 올 것이다.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듯이 너희도 나를 알고 있다. 너희는 나와함께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들이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도 너희를 이기지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때문이다. 자녀들아 용기를 가져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 나는 너의 죄를 쉽게 잊는다. 그리고 내 기억에서 너의 죄를 영원히 지워버린다. 너희안에 있는 남에대한 미움이나 나쁜 기억을 깨끗히 씻어버려라.

%%%%%%%%

%%%%%%%%

1. 한국에서 오신지 한달만에 지난주에 기도회를 찾으셨던 김 율리안나 자매님의 아들 미카엘이 고열로 오늘 기도회에 나오시질 못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시길 빌어 주세요.
2. 이 수산나 자매님이 지난주 천식으로 스텐포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성령가족들의 기도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시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지 준영(요셉)형제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석마르띠노 형제님의 딸 제니퍼(10세)양의 치유에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5. 아르헨티나의 김토마스의 대자 딸 강희영(카타리나)양의 뇌암 제거 수술후 회복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6. 최 카타리나 자매님 :중재 기도 부장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기도로 뒤발침을 해 주시길.. 기도회에 임명받은 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청해 주십시오.

1. 4월 6일(일) Santa Cruz의 Chapel에서 십자가의 길이 있을 예정. 1시 본당에서 car pool로 출발.
형제님; 장갑과 잡초 제거를 위한 간단한 연장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누구나 참석가)
2. 5월 23-25일(93일간) 본당 기초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 4월 10일 (목) 찬미 미사는 성주간을 더욱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취소합니다.

@@@@@@ 기도 요청 @@@@@@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하여...
- + 투병중에 계신 이 인덕(루시아)자매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과 부인이신 에밀리 자매님 수술후 요양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쁨안에 생활 할 수 있기를...

5

“너는 내것이니라” 하신 주님은...

이천년전 골고타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요즈음 다시 조용히 눈을 들어 봅니다. 침묵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노라면 십자가의 마음이 전해옵니다. 내가 죄를 거듭할 때마다 그러한 내 의지의 약함과 무능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와하느 마음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십자가의 속삭임이 들려 옵니다.

이때야 비로소 나는 강요되지 않은 순수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에는 사랑이 우선하고 나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눈물처럼 뉘우침과 감사가 법석이 된 겸손한 눈물이 내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차오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 희미하게 감추어져 있던 모든 허물들도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치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기를 바라는 꼬마 아이처럼 예수님께 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베드로처럼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긴 형제, 자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 주어라.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것처럼.”

금주 십자가의 길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4월 9 일

주제: “ 참 사랑에 눈을 뜨게하소서.”

진행: 김 토마스 음악봉사자; 오그라또, 최유스티노, 김 요한, 도에스터,

복음 묵상: 마르코 14,1-15,47(수난 복음) 참석가족: 20 명

나눔;

김요한; 주님이 주신 탈란트를 감사하며 다시 작은 도구로 봉사할 것을 결심..

최유스티노: 나를 보고 “ 너 암 걸렸냐?” 고 묻는 옆집 영어 선생인 미국인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하여 조그만한 일에 얼굴을 찡그리는 버릇을 버리게 됨을 감사..
 지 요셉: 앓고 있는 병이 시신경이 끊겨 과학의 힘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과학적인 증명까지 곁들린 조언을 듣고 사랑의 힘을 다시 확신하였으며 사랑을 느끼며 기도를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치유가 가능함을..
 최카타리나: 하루 종일 성당을 순례하며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작은 일이라도 희생으로 남을 위해 바치는 기도로서 행하길 당부하며..

예언 모음:

-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어라.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 버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남게 된다.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는 계명안에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 다투어 사랑하여라. 내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 준다.
-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

%%%%%%%%

7. 오늘 기도회는 고백성사 관계로 6교실에서 열렸으며 음악 봉사자가 5명이나 모여 열띤 리더로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체험을 다시 하는 좋은 기도회 였다. 주님이 주신 탈란트를 아낌없는 봉사로 뜨겁게 불태우는 음악 봉사자들에게 보다 더 큰 은혜있으시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8. 기도회에서는 주님의 찬미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사순 기간의 막바지를 좀더 은혜롭게 보내기 위하여 간달한 참회예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신체 반응에대해 체험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9. 시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지 준영(요셉)형제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 석마르띠노 형제님의 딸 제니퍼(10세)양의 치유에 주님 함께 하시길 빕니다.
11. 아르헨티나의 김토마스의 대자 딸 강희영(카타리나)양의 뇌암수술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주사를 투입하며 암과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12. 지난 일요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상하고 땀흘려 봉사를 하고 돌아오는 축복된 길이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4월 16일 (수) 수요 기도회는 성주간을 더욱 거룩하게 참여 하기위하여 쉽니다.

@@@@@ 기도 요청 @@@@@@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하여...
- + 투병중에 계신 이 인덕(루시아)자매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도록...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과 부인이신 에밀리 자매님 수술후 요양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쁨안에 생활 할 수 있기를...

지금이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때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란 과거를 잊고 현재를 자유롭게 살며
 다가오는 내일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성장하려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자 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깨어집니다.
 영혼이 성장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 보이지 부끄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합니다.
 변화를 향한 설렘으로 힘 있게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에 귀기울이십시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입니다.

4월 23 일

주제: “ 끝없는우리의 부활체험”

진행: 김 토마스 음악봉사자; 최유스티노, 도에스터,
 복음 묵상: 요한 20, 19-3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참석가족: 18 명

나눔;

- 홍크리스티나: 성주간의 매일 성당에 나오며 힘든일도 힘들지 않고 기쁘게 할 수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 남이 나를 필요로 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
 이 요셉: 교회의 작은 직책이라도 맡게되면 더 알게되고, 더 감사하며 진정으로 봉사하게..
 이 필로메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힘들었던일을 기쁘게 봉사하니 좋은 일이 넘쳐나 조그만한 것을 드렸더니 크게 갚아주시는 주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부활절을 맞음..
 박 스테파노: 처음 맞는 부활절이라 사순기간에는 실망도 있었으나,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전 준비하심이라고 깨닫게 되어 감사...
 이 니콜라스: 여러개의 시련이 한번에 닥쳐올 때에는 주님으로 부터 오는 힘이 없이는 헤쳐나기 힘들지만, 주님으로 부터 오는 힘을 받으면 모든것이 쉽게...
 박 마리아; 기도의 응답으로 위기를 넘기며 작은 일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것을 깨닫게 되어 주님께 감사..
 김 토마스; 부활은 죽은 다음에서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생활 중에서도 괴로움, 고통등 어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움-, 기쁨, 평화로운 빛으로 나올 때가 부활임을 명심...

예언 모음;

-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그러면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도 다 이루어지리라.
- 마음의 문을 활짝열어라. 그 마음 속에 나의 모든 은총을 부어 넣어 주리라.
- 너희는 네 이웃을 축복하면 그 곱절로 축복을 받지만, 미워하면 곱절로 미움을 받음을 명심하여라.
-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항상 바라고 있다.

%%%%%%%%

%%%%%%%%

- 13.오늘 기도회는 한주일 빠진 후라 모든 가족이 오랜만에 만난듯 기뻐하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도회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 14.교회의 임원으로 새로 불림을 받은 성령가족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간청합니다.
- 15.시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지 준영(요셉)형제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16. 석마르띠노 형제님의 딸 제니퍼(10세)양의 치유에 주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17. 이요셉 형제님의 이모님의 체장암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 18. 아르헨티나의 김토마스의 대자 딸 강희영(카타리나)양의 뇌암수술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투입하며 암과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 19. 기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은 중재기도 책임봉사를 맡고계신 최카타리나 자매님이나 김토마스에게 연락 주십시오. 중재 기도단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림

성령세미나 (5/23-25) 참가자를 금주부터 접수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많이 초대해 주시고, 접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 요청 @@@@@@

- + 교회의 새로 임명된 모든 사목위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 + 장봉녀 아나다시아 할머니(81세)가 노환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 + 김명환 베드로 형제님이 2년의 시한부로 전신 신경마비를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주십시오.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하여...
- + 김대중 토마스 형제님과 부인이신 에밀리 자매님 수술후 요양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쁨안에 생활 할 수 있기를...

5

우물과 마음의 깊이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맹이 하나를 던져 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지고 내 마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되며
 새 기운을 얻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우물일까요?
 금방 찰랑거리는 얕은 우물은 아니겠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마음의 우물은
 남에게 새 기운을 넣어주고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우물이 아닐까요?

4월 30 일

주제: “ 만남과 나눔 ”

진행: 김 토마스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유스티노, 김 요한, 이 세실리아.

복음 묵상: 루가 24, 35-48(예수의 마지막 분부) 참석가족: 16명

나눔:

- 최 바오로: 부활하신 주님이 뼈와 살이 있으며 잡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면 그같이...
- 이 니콜라스: 믿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성체성사를 통해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 박스테파노: 양, 부피, 크기도 없는 사랑, 평화, 성령에 대해 묵상 중,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에서 서로 느끼는 크기나 양이 서로 다른 것을 느껴...
- 이필로메나: 우리는 믿지 못하여 안절 부절 하며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인간을 위하여 오셨다가 인간을 위해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연민의 정을 느끼며...
- 김 요한: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을 뒤돌아 보며 나에게 주신 탈란트를 남에게 나누는 삶을..
- 김 토마스: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나누며 실천에 옮길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됨을...
- 이 요셉: 미워하기 보다 왜 미워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고, 용서하므로써 용서 받을 수 있고 용서 받으므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예언 모음:

-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너의 말로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베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가졌던 평화를 꼭 같은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 평화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를 참된 평화이다. 자녀들아 그 평화를 간직하여라.
- 모든 것을 덮어두어라. 지난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아팠던 것을 잊어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여라.
-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준다. 이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풍요로운 것이며 더 참된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그 믿음이 너를 완성 시켜 주실 것이다.

%%%%%%%%

%%%%%%%%

- 20.오늘 기도회는 다음주 의 성체 심신 피정으로 착각하여 여러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 21.전막달레나 자매님이 따님과 함께 5/3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 22.교회의 임원으로 새로 불림을 받은 성령가족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간청합니다.
- 23.엘레나 자매님이 7시간씩 주사를 맞는 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
- 24.시력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지 준영(요셉)형제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5.석마르띠노 형제님의 딸 제니퍼(10세)양의 치유에 주님 함께 하시길 빕니다.
- 26.이요셉형제님의 이모님의 체장암으로 투병중에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빕니다.
- 27.아르헨티나의 김토마스의 대자 딸 강희영(카타리나)양의 뇌암수술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투입하며 암과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오.

성령기도회 소식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Kimijman1@netzero.com or (408) 249-4539

알림

성령세미나 (6/6-6/8) 참가자를 금주부터 접수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많이 초대해 주시고, 접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 요청 @@@@@@

- + 교회의 새로 임명된 모든 사목위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 + 장봉녀 아나다시아 할머니(81세)가 노환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 + 김명환 베드로 형제님이 2년의 시한부로 전신 신경마비를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빌어 주십시오.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위하여...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과 부인이신 에밀리 자매님 수술후 요양중에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쁨안에 생활 할 수 있기를...

5

참된 행복은?

어떤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싶다는 소원은 악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소원이다. 사람이 행하고 경험하는 일이 참된 행복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행복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소원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톨스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기쁨이라면, 참 사랑이고 참 행복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빨리, 더 많이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나 행복이나 사랑이 아니면 당신은 그것을 남과 나누기 보다 더 강하게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참 좋은 것은 나누려 하고 덜 좋은 것은 가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사는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